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에 심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북구는 광주·전남 발전의 중심 자치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상표제 운영

송광운광주시 북구청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민 중심의 감동행정을 펼치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잘 사는 문화 북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본촌산단과 첨단산단 등과 행정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 기업정서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제품 상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구직자 취업캠프, 맞춤형 전문 컨설팅, 북구 농산물 공동상표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 청장은 특히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을 중심으로 고품격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광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우수작품을 선정해 상시 관람할 수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 및 작가 핸드프린팅 공원 등을 조성해 국립박물관과 중외공원, 문화동 시와 문화마을, 가사문화관 등을 연계해 호남 최고의 관광 문화벨트로 만들 예정이다.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송 청장은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소의 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 성장과 동시에 분배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오는 2010년까지 북구 효령동에 11만㎡ 규모의 노인복지타운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촌동에 150개 병실 규모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동 등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과 북부순환

도로 개설 및 용진~북광주 IC 도로확장공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양산계 근린공원 조성, 운암·동림동 시립도서관, (재)광주북구장학회 기금모금 활성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추진

송 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각종 정부·민간 평가에서 120회에 걸쳐 52여명의 상사업비를 받아 열악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일한 만큼 정직한 평가를 받는 자치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주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문화 중심도시, 잘 사는 북구’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형 기자 golee@/사진=나명주기자 mjna@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당하니 가슴 아파”

DJ ‘용산 참사’ 심정 토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2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사저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당 지

도부와 가진 신년 하례회에서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성급하게 철거야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안타까워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며 “불법한 내세워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한 뒤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정치가 하는 것이 가난하고 서러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뭐가 필요하냐”고 반문

했다.

그는 이어 “그 사람들은 서민·중산층 정당인 민주당이 위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바라볼 곳은 민주당 밖에 없다”며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니만큼, 민주당이 끝까지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연말 연초 입법전정과 관련, “애쓰고 잘 싸워서 민주당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선서 다시 한 오바마

대법원장 실수로 선서문 어순 틀려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전날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다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내 ‘맵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관으로 취임선서를 다시 했으며 기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하루 전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취임선서를 한 것은 전날 선서문의 어순을 바꿔서 선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문은 연방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어순을 바꿔 선서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맵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관으로 취임선서를 다시 했으며 기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이 ‘체면 손상’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선서를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의 모범을 보이고 ‘위헌시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레그 크레이그 백악관 법률고문은 “어제 대통령 선서가 효과적으로

집행됐고, 대통령이 적절하게 선서했다고 믿지만 선서문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재선서를 실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선서문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나,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내가 가진 능력을 다해 성실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존중,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선서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선서를 처음 주관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선서문을 선창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execute the office)’라는 구절 앞에 나와야 하는 ‘성실히’(faithfully)라는 단어를 순서를 뒤바꿔 잘못 읽었던 것. /연합뉴스

“행정개편 과감하게” 한목소리

한국지방신문협 제주서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현행 광역·기초 지자체간 통합과 읍면동의 광역단위 대동제(大洞制) 재편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현,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하고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회람제작소는 22일 제주일보사에서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하는 첫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진단하며 보다 심도있는 대안을 모색해 최적의 개편모형을 찾아야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회람제작소는 22일 제주일보사 회의실에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첫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에서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과감하게 행정시를 없애 단순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통한 행정체제 재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투자 유치 측면에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행정 차원에서 2년 7개월간 2300억원 정도의 중부 투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행정 효율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은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에 앞서 제주도의 권력 집중화 문제가 발생했으며,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행정 효율성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론을 폈다.

<한국지방신문협 공동취재단=김태형 기자>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Academy) featuring '79% 공무원 합격의 대세' and '역시 한빛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제주도 여행' (Jeju Island Travel) by '제주무궁화관광' (Jeju Mugunghwa Travel) with a price of 89,000 won.

Advertisement for '리첸' (RITCHEN) featuring a kitchen scene and the text '리첸 제주 광주직영전시장 OPEN'.